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노리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리개는 한복 저고리의 고름이나 치마허리 따위에 다는 우리나라 전통 장신구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명 아이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화려한 모양과 색깔의 노리개가 인상적이어서, 오늘 발표 소재로 노리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노리개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 자료 제시) 먼저 이 부분을 주체라고 부르는데요, 패물이나 직물 등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체가 달려 있는 줄 부분을 끈목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주로 매듭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 여러 가닥의 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술이라고 하는데, 움직일 때 울동감이 있어 멋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 자료 제시) 세 줄로 된 노리개가 한데 묶여 있는데요, 이를 삼작노리개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주로 춤 전 화면에서 본 한 줄로 된 단작노리개를 착용하고 명절이나 혼례 때에는 세 줄로 된 삼작노리개를 착용하여 좀 더 격식적인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리개는 주로 어떤 사람이 착용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왕족부터 백성들까지 누구나 노리개를 찻다고 합니다. 단, 노리개의 소재와 크기 등은 계층에 따라 제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리개라고 하면 여자들만 차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조선 시대에는 남자들도 노리개를 찻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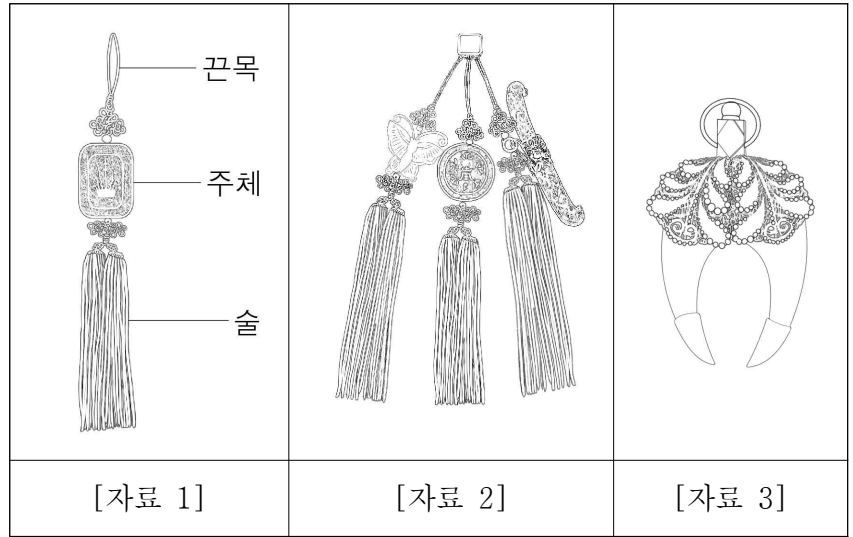
그럼, 노리개를 옷에 단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노리개를 착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옷에 장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외에도 노리개의 주체에 염원을 담아 착용했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 모양의 주체에는 다산에 대한 염원을, 거북 모양의 주체에는 장수에 대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 (㉢ 자료 제시) 주체가 호랑이 발톱으로 되어 있는데요, 호랑이 발톱이 액운을 쫓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옷의 액세서리나 열쇠고리와 같은 소품을 만들 때 노리개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 노리개가 소개되고 있어 노리개를 찾는 외국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도 노리개에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합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소재를 선택한 동기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질문을 통해 청중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 ③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예상하며 듣도록 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발표 소재에 대한 관심을 바라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 노리개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명칭과 특징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에 격식적인 느낌을 주고자 착용한 노리개를 보여 주기 위해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③ ㉡에 삼작노리개가 세 줄로 된 노리개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에 노리개의 주체에 염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⑤ ㉢에 노리개의 소재와 크기에 제한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3]을 활용하였다.

3. <보기>는 학생의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청중 1’과 ‘청중 2’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청중 1: 발표를 들으면서 노리개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어졌는데, 노리개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아쉬웠어. ○○○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봐야겠어.

청중 2: 예전에 박물관에서 노리개를 봤을 때는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생각했는데, 발표를 듣고 노리개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 근데 남자들이 착용한 노리개는 어떤 모양의 노리개였을까?

- ① 발표 내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발표 내용에 관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에 흥미를 갖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4~7] (가)는 교내 신문의 연재 기사문이고, (나)는 (가)의 보도 이후에 열린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유휴 교실

우리 학교가 교육청의 ‘학교 공간 개선 지원 사업’의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유휴 교실 활용 위원회’ 회의를 통해 유휴 교실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학교는 학급 수 감축으로 생긴 빈 교실 두 칸의 활용도가 낮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우리 학교는 교육청의 학교 공간 개선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다.

학교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된 유휴 교실 활용 위원회를 조직하여 유휴 교실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본 회의에 앞서 실시된 예비 모임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먼저 알아본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열기로 협의하였다. 제1차 유휴 교실 활용 위원회 회의는 오는 ××일에 학생 자치실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해 김○○ 학생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어요.”라고 말했고, 최△△ 교사는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가 잘 충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해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었다.

한편 본보에서는 앞으로 실시될 회의 결과를 연재 기사 형태로 실어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나)

사회자: 제1차 유휴 교실 활용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배부한 참고 자료들을 보시면서 유휴 교실의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학생 위원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위원: 학생 선호도 조사를 보면 학생들은 유휴 교실을 휴게실로 사용하기를 가장 원합니다. 교실은 공부를 위한 공간이다 보니,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공부 이외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유휴 교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위원: 학생 위원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이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므로 유휴 교실은 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휴게실로만 이용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사회자: 학생 위원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활용 방안을, 교사 위원은 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학부모 위원: 저도 유휴 교실은 교육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학생 선호도 조사를 보면 스터디카페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편인데 유휴 교실을 스터디카페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지요? 자료를 보니 인근의 □□ 고등학교도 유휴 교실을 스터디카페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생 위원: 사업 취지를 살펴보면 ‘교육 활동에 적합한 공간’이라는 말도 있지만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스터디카페를 만들게 되면

공부하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사업 취지에도 맞습니다.

사회자: 학생 위원과 학부모 위원이 말씀하신 휴게 공간이나 스터디카페 모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게 공간과 교육 공간의 성격 [B]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 활용 방안은 없을까요?

교사 위원: 유휴 교실 두 칸을 통합하여 북카페의 형태로 공간을 구성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터디카페로 꾸민 □□ 고등학교의 보고서를 보니 이곳을 독서 교육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는데, 북카페로 만든다면 교과와 연계된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북카페를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독서 모임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위원: 북카페로 만든다면 편하게 쉬면서 책도 읽을 수 있어서 학생들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인근 학교의 사례를 보면 공간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우리 학교는 내부 디자인 설계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자: 그럼, 유휴 교실을 북카페로 활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공간 내부 디자인 설계 방법에 대해서는 제2차 회의에서 디자인 전문가를 모시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가)를 작성하며 고려한 사항 중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기사문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격식체를 사용한다.
- ② 기사문의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회의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기대감을 나타낸다.
- ③ 기사문의 형식을 고려하여 기사 맨 앞부분인 전문에 유휴 교실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④ 기사문의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회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독자에게 알릴 것임을 언급한다.
- ⑤ 기사문의 목적을 고려하여 학교 공간 개선 지원 사업 신청 배경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5. (나)의 [A], [B]에 드러난 ‘사회자’의 말하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참가자의 발언 내용을 되물으며 발언의 정확한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참가자들의 발언의 취지를 확인하며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B]에서와 달리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④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참가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뒤 다음 발언자를 지목하고 있다.

6. <보기>는 회의 전에 참가자에게 배부된 자료이다. (나)에서 이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유희 교실에 대한 학생 선호도 조사
휴게실(42%), 스터디카페(37%), 매점(15%), 기타(6%)

ㄴ. 교육청 공문 내용
사업 취지: 학교 구성원 주도의 공간 설계로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줌.

ㄷ. 인근 학교의 공간 개선 지원 사업 보고서
1. □□ 고등학교
1) 공간 개선 결과: 스터디카페 구축
2) 만족도: 만족(83%), 불만족(17%)
3) 공간 개선 결과에 대한 생각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어 좋다.
- 독서 교육 공간이나 세미나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학생들은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을 원했는데, 의자가 너무 딱딱하고 공간 배치가 갑갑해서 불편하다.

- ① 학생 위원은 학생들이 바라는 공간의 성격을 제시하고자 ㄱ을 활용했겠군.
- ② 교사 위원은 학생 위원의 의견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ㄴ을 활용했겠군.
- ③ 학생 위원은 내부 디자인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ㄷ을 활용했겠군.
- ④ 학부모 위원은 자신이 제안한 활용 방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ㄱ, ㄷ을 활용했겠군.
- ⑤ 교사 위원은 공간의 활용에 대한 학생 위원과의 인식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ㄴ, ㄷ을 활용했겠군.

7. 다음은 (나)에 대한 연재 기사문이다. 회의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유희 교실, 북카페로 변신

㉡ 지난 ××일 학생 자치실에서 열린 제1차 ‘유희 교실 활용 위원회’ 회의 결과 유희 교실을 북카페로 만들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회의에서 ㉢ 학생 위원은 유희 교실을 휴게실로, 교사 위원은 교육 활동 공간으로, 학부모 위원은 스터디카페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열띤 토의 과정을 거쳐 교사 위원은 휴식과 교육의 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북카페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 학부모 위원은 북카페가 되면 교과 연계 독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동의하였고, 학생 위원도 북카페로 만들 때 고려할 점을 건의하며 동의하였다.

오는 ◇◇일에 열릴 ㉤ 제2차 회의에서는 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내부 디자인 설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10] 다음은 탐방 동아리 블로그에 올릴 학생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배의 섬, 진도는 참 멀었다. 오후 늦게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다. 반갑게 맞잡은 할아버지의 손이 따뜻하고 목직했다. 세발낙지 비빔밥으로 저녁을 맛나게 먹었다. 내일 둘러볼 운림산방과 소포마을, 그리고 울돌목 등에 대한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설렜다.

아침 일찍 할아버지와 함께 운림산방으로 향했다. 운림산방은 소치 허련의 화실이다. 소치는 스승인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낙향하여 운림산방을 짓고 자연을 벗하여 그림을 그렸다. 운림산방 뒤로 침찰산이 병풍처럼 둘러 서 있다. 사철 푸르른 침찰산에 걸친 구름과, 깊은 골짜기를 흘러내린 시내와, 운림산방의 연못에서 피어 오른 안개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로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다.

침찰산에 깃든 쌍계사의 동백꽃을 한참 구경하다가 소포마을로 길을 재촉했다. 소포마을은 소포결군농악, 강강술래, 남도 민요 등이 전승되는 남도 소리의 산실이다. 봄의 기척이 들려오는 들녘에는 파릇파릇한 대파를 뽑아 묶는 농부들이 보인다. 진도 아리랑 한 가락이 긴 발두령을 타고 들리는 듯하다.

점심을 먹고 공연 시간에 맞추어 진도향토문화회관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씻김굿, 진도 북놀이, 판소리 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신명 나는 공연이었다. 공연이 끝날 때 모두 어우러져 북소리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쳤다. 그 여운이 아직도 가슴 가득하다.

진도대교가 놓여 있는 울돌목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 해 질 무렵 전망대에 올랐다. 울돌목, 명량(鳴梁)! 좁은 길목을 빠져 나가는 물살이 거세고 빨라 마치 물이 울음을 우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곳. 진도대교 밑으로 흐르는 바닷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들끓고 있었다.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해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10여 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쳤다는 명량해전. 수업 시간에 배운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서 있다. 영화 ‘명량’을 보며 선생님은 영웅의 지략과 민초들의 헌신을 역설하셨다.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다. 왜선들을 마주하고 홀로 선 대장선의 깃발이 펠릭이고 북소리가 들린다.

8. 윗글의 글쓰기 계획 중에서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글쓰기 계획: 여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 1. 운림산방
 - 운림산방의 내력에 대한 정보 ㉠
 - 운림산방 주변 경관과 이에 대한 감상
- 2. 소포마을
 - 소포마을에 전승되는 전통 문화
 - 소포마을의 들녘에 봄이 오는 모습 ㉡
- 3. 진도향토문화회관
 - 공연 시간과 내용에 대한 안내 ㉢
 - 공연을 감상하고 난 뒤의 느낌
- 4. 울돌목
 - 울돌목 지명의 유래와 이에 얽힌 전설 ㉣
 - 울돌목에서 떠올린 역사적 사실과 수업 내용 ㉤

- ① ㉠ ② ㉡ ③ ㉢ ④ ㉣ ⑤ ㉤

9. 윗글을 블로그에 쓰기 위한 매체 언어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문단에서 탐방 지역의 약도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 ② 2문단에서 운림산방과 침찰산의 사진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장소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③ 3문단에서 진도 아리랑을 청각 자료로 제시하여 독자가 직접 진도 아리랑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④ 4문단에서 진도향토문화회관의 공연 정보를 하이퍼링크로 제시하여 독자가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⑤ 5문단에서 씻김굿의 한 장면을 영상 자료로 제시하며 영웅의 지략과 민초들의 헌신을 실감나게 전달한다.

10. <보기>의 '선생님'의 조언에 맞게 글에 추가할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여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며 글을 끝맺으면 어떨까? 그리고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색채어와 비유적 표현을 넣었으면 좋겠구나.

- ① 내 마음에서도 북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저 멀리 파아란 하늘 아래 도란거리는 섬들이 평화롭다.
- ② 울돌목을 흐른 바닷물이 금빛 비늘을 퍼덕인다. 섬들 너머로 번지는 붉은 노을에 집으로 향하는 발길이 물든다.
- ③ 내일은 진도향과 남도진성을 둘러보고, 석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세방낙조에서 이번 여정을 갈무리해야겠다.
- ④ 흰 물거품이 일렁이는 울돌목 옆에 장군의 웅장한 동상이 서 있다. 그 기상을 가슴에 품고 용장산성으로 향한다.
- ⑤ 장군의 용맹과 지략이 나라를 구했음을 나는 깨달았다. 다도해의 섬들이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저물고 있었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명사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눌 수 있다. 가령 '새 물건이 있다.'에서 '물건'은 관형어인 '새'가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립 명사이다. 이와 달리 '헛 것이 있다.'에서 '것'은 관형어인 '헛'이 생략되면 '것이 있다.'와 같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되므로 의존 명사이다. 이처럼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며 조사와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의존 명사는 특정한 형태의 관형어를 요구하는 선행어 제약과, 특정 서술어나 격 조사와만 결합하는 후행어 제약이 있다. 다음 예문에서 (ㄱ)은 선행어 제약, (ㄴ)은 후행어 제약을 보여 준다.

(ㄱ) 여기 (은 / *오는 / *을 / *오던) 지가 오래되었다.
 (ㄴ) 나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일어난 김에 일을 마무리하자.
 우리는 네게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ㄱ)에서 '지'를 수식하는 관형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만 결합하므로 선행어가 제약된다. (ㄴ)에서 '수'는 주격 조사 '가'와, '줄'은 목적격 조사 '을'과, '김'은 부사격 조사 '에'와, '따름'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만 결합하므로 후행어가 제약된다. 이와 달리 '것'은 결합할 수 있는 격 조사의 제약이 없이 두루 사용된다. 의존 명사가 선행어 제약이나 후행어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의존 명사가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예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의존 명사 중에는 '만큼'과 같이 동일한 형태가 조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의 형태가 여러 개의 품사로 쓰이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 한다. 예를 들어 [A] '먹을 만큼 먹었다.'의 '만큼'은 관형어 '먹을'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지만, '너만큼 나도 할 수 있다.'의 '만큼'은 체언 '너' 뒤에 붙는 조사이다. 이때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는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11.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띄어쓰기가 옳은지 판단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문	판단 결과
① 노력한 <u>만큼</u> 대가를 얻는다.	×
② 나도 형 <u>만큼</u> 운동을 잘 할 수 있다.	×
③ 그 사실을 몰랐던 <u>만큼</u> 충격도 컸다.	○
④ 시간이 멈추기를 바랄 <u>만큼</u> 즐거웠다.	○
⑤ 그곳은 내 <u>고향만큼</u> 아름답지는 않다.	○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단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ㄱ.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ㄴ. 그들은 칭찬을 받을 만도 하다.
 ㄷ. 그를 만난 것은 해 질 무렵이다.
 ㄹ. 동생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ㅁ. 포수는 호랑이를 산 채로 잡았다.

- ① ㄱ의 '바'는 목적격 조사와만 결합할 수 있으므로 후행어 제약이 있군.
- ② ㄴ의 '만'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만 올 수 있으므로 선행어 제약이 있군.
- ③ ㄷ의 '무렵'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만 결합할 수 있으므로 후행어 제약이 있군.
- ④ ㄹ의 '리'는 격 조사의 제약이 없이 두루 결합할 수 있으므로 후행어 제약이 없군.
- ⑤ ㅁ의 '채'는 '-(으)ㄴ' 외에 다른 관형사형 어미도 올 수 있으므로 선행어 제약이 없군.

13. 한글 맞춤법과 중세 국어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한글 맞춤법	<p>【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p> <p>◦ 수캐(○) / 수개(×) ◦ 살코기(○) / 살고기(×)</p>						
관련 자료	<p>중세 국어에서는 ‘술ㅎ’, ‘암ㅎ[雌]’, ‘수ㅎ[雄]’, ‘안ㅎ[內]’, ‘나라ㅎ’ 등의 ‘ㅎ 중성 체언’이 있었다. ‘ㅎ 중성 체언’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ㅎ’이 나타나기도 하였다.</p> <table border="1"> <tr> <th>‘ㅎ’이 나타나는 경우</th> <th>예</th> </tr> <tr> <td>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는 경우 ‘ㅎ’을 이어 적음.</td> <td>하늘ㅎ + 이 → 하늘히(하늘이)</td> </tr> <tr> <td>자음 ‘ㄱ, ㄷ, ㄴ’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는 경우 ‘ㄱ, ㄷ, ㄴ’이 됨.</td> <td>고ㅎ + 기리 → 고키리(코끼리)</td> </tr> </table> <p>현대 국어에서는 몇 개의 복합어에서만 ‘ㅎ’ 중성 체언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수캐’, ‘살코기’, ‘암평아리’ 등이 그에 해당한다.</p>	‘ㅎ’이 나타나는 경우	예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는 경우 ‘ㅎ’을 이어 적음.	하늘ㅎ + 이 → 하늘히(하늘이)	자음 ‘ㄱ, ㄷ, ㄴ’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는 경우 ‘ㄱ, ㄷ, ㄴ’이 됨.	고ㅎ + 기리 → 고키리(코끼리)
‘ㅎ’이 나타나는 경우	예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는 경우 ‘ㅎ’을 이어 적음.	하늘ㅎ + 이 → 하늘히(하늘이)						
자음 ‘ㄱ, ㄷ, ㄴ’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는 경우 ‘ㄱ, ㄷ, ㄴ’이 됨.	고ㅎ + 기리 → 고키리(코끼리)						

- ① ‘안팎’은 ‘ㅎ 중성 체언’인 ‘안ㅎ’에 ‘밖’이 결합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이겠군.
- ② ‘수캐’는 ‘ㅎ’이 ‘ㄱ’과 어울려 ‘ㅋ’으로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이루어진 것이겠군.
- ③ ‘살코기’의 ‘살’은 중세 국어에서 단독으로 쓰일 경우 ‘술ㅎ’의 형태로 사용되었겠군.
- ④ ‘나라’는 중세 국어에서 조사 ‘이’와 결합하는 경우 ‘나라히’의 형태로 사용되었겠군.
- ⑤ ‘암평아리’는 중세 국어에서 ‘ㅎ 중성 체언’ ‘암ㅎ’에 ‘병아리’가 결합한 흔적일 수 있겠군.

14.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의어의 경우 의미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밝다’의 경우, ‘달이 밝다.’에서는 한 자리 서술어, ‘그는 지리에 밝다.’에서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럼, 학습지에 제시된 다의어 ‘가다’와 ‘생각하다’의 의미와 예문을 보고, ㉠ ~ ㉣ 중에서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인 경우를 모두 골라 볼까요?

가다

1.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 친구가 내일 서울로 간다. ㉠
2. 금, 줄, 주름살, 흠집 따위가 생기다.
 ¶ 바지에 구김이 너무 간다. ㉡
3. 기계 따위가 제대로 작동하다.
 ¶ 낡은 괘종시계가 잘 간다. ㉢

생각하다

1.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다.
 ¶ 학생이 진로를 생각한다. ㉣
2.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가지다.
 ¶ 우리가 투표를 의무로 생각한다.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15. <보기>의 ㉠이 일어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음운 변동에는 ㉠ 교체, 탈락, 첨가 등이 있는데, 용언의 활용에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날 때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모음의 음운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음 종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단모음: ㅏ,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반모음: ㅛ, ㅜ/ㅠ
- 이중 모음(반모음 + 단모음): ㅟ, ㅠ, ㅢ, ㅤ, ㅥ, ㅦ...

예를 들어 ‘오- + -아’가 [와]로 되는 음운 변동을 설명하면,

	(변동 전)	(변동 후)
오- + -아 → [와]	ㅛ + ㅏ	ㅟ

와 같이 교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례	변동 전	변동 후
① 뛰- + -어 → [뛰여]	ㅌ + ㅛ	ㅌ + ㅟ
② 살피- + -어 → [살피]	ㅣ + ㅛ	ㅟ
③ 치르- + -어 → [치러]	ㄷ + ㅛ	ㅟ
④ 끼- + -어 → [끼여]	ㅣ + ㅛ	ㅟ
⑤ 자- + -아서 → [자서]	ㅈ + ㅏ	ㅟ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숙주: 저 선생님! 제가 신숙주라는 인물과 비유되는 것마저 저로서는 불쾌합니다.

학자: 신숙주와는 같은 신씨이며 본까지 같은 자네로서는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 자네의 먼 할아버지 입장이 한번 되어 보게. 지금 같은 말이 나오나.

숙주: 제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더라도 친구들을 배반하진 않을 겁니다.

학자: 좋아 그럼 자넨 자네의 의지로써 신숙주의 입장을 타개해 보게. 결국 자넨 자신보다는 그분을 존경하게 될 걸세.

숙주: 전 그렇잖을 자신이 있습니다.

학자: 그래? 그럼 한번 해보세.

세조: ㉠ 저..... 선생님.

학자: 응? 뭐가?

세조: 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그 옛날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 옛날 의상 같은 것의 준비가 전혀 없잖습니까? ㉡ 그러구 저 흰 궁중어 같은 건 서툴러놔서......

학자: ㉢ 하하하..... 알겠네. 하지만, 여보게 의상에 대한 고종이나 궁중어 따위라면 저속한 야담잡지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네.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그따위 옷이나 말 같은 것이 아니잖나? 물론 지금과 그때는 제도나 풍습의 차이 같은 것이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연구해보려는 것에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게 아니잖을까? 그런 걱정은 말고, 자! 세조 역은 자네가 맡도록 하게. 때는 세조가 즉위한 지 일 년 후로 하지. 자넨 저 위로 올라가게. 옹지, 옛날에 산과 들을 뛰어 돌아다니며 주색을 즐기던 자네는 아니, 수양은 왕이 됐네. 표정이 좀 더 침울했으면 좋겠네.

세조: 잘 안 되는데요. (일동 웃음)

학자: 잘 해 보게. 옹지 정말 배우 같은데? 저, 정군 불이 좀 밝잖아?

정찬손: (손으로 스위치를 끄는 시늉을 한다.)

(조명 조금 어두워진다.)

학자: 됐어.

세조: 저, 자신이 없는데요. (일동 웃음)

학자: 그렇지 감정을 돋우는 덴 음악이란 게 있지. 자네들은 날 따라오게. 옆에서, 그렇게 웃으면 방해가 될 테니.

(세조와 숙주를 제외한 사람들 퇴장한다.)

성삼문: 저 선생님 우리 어떤 정해진 얘기 줄거리 같은 것이 없잖아요?

학자: 허허 이거 봐요 성군. 뚜렷한 줄거리가 있다면 아예 토론을 계속할 필요도 없잖아? 우린 그저 성실하게 각 인물들의 입장을 더듬으면 되는 거야.

성삼문: ㉣ 그래두 어떤 질서 같은......

학자: 허허 이것 보게. 자네의 발은 자네가 명령한 질서를 잃어버린 채로도 이렇게 길을 잘 가고 있잖아? 자넨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와 얘기하느라고 발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을 테니 말야. 여하튼 굳이 그 질서라는 것이

거슬리면 교통 순경한테 가서 물어보게.

(전원 퇴장한다. 성삼문 고개를 가우뚱 한다.

시계 소리 한 시를 친다. 이어서 음악이 얹게 흐른다.)

숙주: 전하 이제 돌아가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조: (서류를 들썩이며) 피곤한가?

[중간 부분의 내용] 그날 밤 조선의 왕 세조는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이 역모를 꾀한다는 것을 듣고 이들을 처형한다.

윤씨: 형장엔 무엇 때문에 가셨어요?

숙주: 그들과 함께 죽는 것보다는 그들의 죽음을 보는 것이 내게는 더 큰 시련이기 때문이야. 나는 나를 시험했어. 그들의 증오까지 받아들였어.

윤씨: 그것으로 당신의 자존심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숙주: 자존심이라구? 당신은 아직도 사리를 그릇 깨닫고 있어.

윤씨: 그들은 폭군에 저항했어요. 그분들은 옳은 일을 위해 죽었어요.

숙주: 어리석은 죽음이야. 그들의 죽음이 백성과 자신에게 감상적인 동정을 불러일으켰을 따름이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었어.

윤씨: 당신이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가요?

숙주: 그들이 죽은 건 명예 때문이야. 그들은 단 한 가지 일밖에는 몰라. 충성이란 어리석은 이름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에게 명예심을 불러일으켰어. 그들은 죽었어. 그런데도 결국 올바른 일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나이 어린 아이에 대한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죽은 거야.

윤씨: 당신은 수양대군의 폭정을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군요. [A]

숙주: 어느 의미에서는 옳지. 그는 야심가지만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야. 지배자는 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해. 그래서 나는 정과 인연을 끊었어.

윤씨: 배반이죠. 비겁한 배반이야요. 모두들 당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군께 지조를 굽혔다고 떠들어요. 그러한 오명은 영원히 벗을 수 없어요.

숙주: 난 그들을 설복시키는 데 실패했을 따름이야. ㉤ 상왕을 복위시키는 것은 무사와 안녕만을 바라는 늙은이들의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구..... 결국 그들은 전하의 악명과 함께 영원히 그 충성심으로 떠받쳐지겠지. 백성들이란 그런 죽음을 좋아하니까.

윤씨: 철면피예요.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다니. 결국 당신은 그들과 인연을 끊음으로써 부귀와 영달을 얻었군요. 그것도 부정하실 생각이세요?

숙주: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의 불안이야. 아직 내 머릿속엔 형장에서 사지를 늘이고 피를 흘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선하게 떠올라. 그 모습은 아마 영영 내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을 거야.

윤씨: 그리고 영원히 신씨 일가의 오명도 벗을 길이 없겠죠.

- 신명순, 「전하」 -

16. ㉠ ~ ㉥에 대한 연출가의 지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학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어투로 연기해 주세요.
- ② ㉡: 연기를 할 만한 무대 공간이 협소한 것을 걱정하는 어투로 연기해 주세요.
- ③ ㉢: 걱정할 것이 없다는 듯이 웃어넘기는 어투로 연기해 주세요.
- ④ ㉣: 다양한 연기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걱정하는 어투로 연기해 주세요.
- ⑤ ㉤: 상대방의 판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불안해 하는 어투로 연기해 주세요.

17. [A]에서 '윤씨'와 '숙주' 간의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육신은 정의를 위해 죽었는가?
- ② 세조의 폭정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③ 신숙주의 행동은 비겁한 배반이었는가?
- ④ 신숙주의 배반은 자신을 위한 일이었는가?
- ⑤ 백성들은 사육신을 충신으로 평가할 것인가?

18. <보기>의 ㉠, ㉡를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하」는 아래의 도식과 같이 ㉠ 틀극 속에 ㉡ 내부극이 삽입되는 형태인 극중극의 구조를 보인다.

이 극에서 관객들은 관객과 배우 사이에 미리 정해 놓은 암묵적 약속인 컨벤션에 따라 극의 상황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극중극의 구조에서는, 틀극의 배우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내부극의 배우나 관객이 되게 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A ㉠ → A'

B ㉠ → B'

C ㉠

틀극

내부극

→ 관객

관객(실제)

- ① 시계소리, 음악 등의 효과음을 기점으로 ㉠에서 ㉡로 전환되는군.
- ② ㉠에서 '학자'가 ㉡에서의 줄거리를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의 등장인물들이 자율적으로 연기할 수 있었겠군.
- ③ 옛날 의상을 입지 않아도, 관객들은 컨벤션에 따라 ㉡의 배경이 조선 시대임을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겠군.
- ④ ㉠에서 '학자'가 신숙주에 비판적인 인물에게 ㉡에서 '숙주' 역할을 맡긴 것은 인물의 인식 변화를 의도한 것이었겠군.
- ⑤ 한 명의 배우가 ㉠에서 두 개의 배역을 담당함으로써 실제 관객들이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겠군.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각자 정해진 운명이 있고, 초월적인 힘에 밀려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삶이 있다고 믿는 가치관을 ㉠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시에서 화자는 각기 다양한 시적 상황에 처하며, 처한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른 생각과 행동을 보여 준다. 이는 개인의 고유한 삶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화자가 운명론적 세계관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내면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작품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아래의 두 작품에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타나 있지만, 각각의 화자가 현재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가)

㉠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A]
매글은 다 낡은 무명샤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
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해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B]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C]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앉아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별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찌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D]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E]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
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
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즈 썸'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벨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 울력: 힘으로 몰아붙임.

(나)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 고루 하련마는
 어찌된 인생이 이토록 괴로운고
 삼순구식(三旬九食)을 얻거나 못 얻거나
 십년에 갓 한번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누공(顔瓢屢空)*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간난(原憲艱難)인들 나같이 심했을까
 ㉠ 봄날이 더디 흘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에 따비 얻고 서편 이웃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울며씨 한 말은 반 넘어 쥐 먹었고
 가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심었거늘
 한아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일하라
죽 쏜 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짓고 코로 휘파람 분다
 울며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목히니
 싸리피 바람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나라빛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장초(叢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중략)

세시 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친척들과 손님들은 어이하야 접대할꼬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많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야 여의려뇨
 술에 음식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餞送)하여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四方)으로 가라 하니
 추추분분(啾啾憤憤)하야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 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일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타이르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공혁(恐嚇)*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억지로 피하여 잔피로 여일려나
 하늘이 만든 이 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貧賤)도 내 분(分)이어니 설위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

*안표누공: 공자의 제자인 안희의 가난함.
 *궁귀: 가난 귀신.
 *공혁: 울러대며 꾸짖음.

1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특정 공간의 대비를 통해 역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④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축약적 심상을 사용하여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20. (가)의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외부의 사물을 응시하던 화자의 시선이 내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② [B], [C]에서는 [A]의 '흰 바람벽'을 보는 상황이 이어지면 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제시되고 있다.
- ③ [B], [C]에 나타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D]에서 자기 연민으로 전환되고 있다.
- ④ [D]에서 지나가는 글자들에 내재된 자기 긍정의 정서가 [E]에서 강화되고 있다.
- ⑤ [E]에서는 [D]에 나타난 애상적 정서에 침잠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탄궁가」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대부가 자신이 처한 궁핍한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가사이다. 이 작품에는 가난으로 인해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형편과 극심한 궁핍으로 인해 사대부임에도 불구하고 종에 대한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 등이 잘 나타나 있다.

- ① '죽 쏜 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에서 농사일로 종의 눈치를 보는 몰락한 사대부의 처지를 엿볼 수 있군.
- ② '세시 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에서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한탄을 엿볼 수 있군.
- ③ '이 원수 궁귀를 어이하야 여의려뇨'에서 가난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무능함에서 오는 자괴감을 엿볼 수 있군.
- ④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에서 힘겨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없는 비관적 현실을 엿볼 수 있군.
- ⑤ '빈천도 내 분이어니 설위 무엇하리'에서 궁핍한 현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내적 성찰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은 화자의 절망감이 심화되는 시간이다.
- ② ㉠은 화자가 과거의 고통을 상기하는 시간이고, ㉡은 화자가 행복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시간이다.
- ③ ㉠은 화자가 시간의 단절감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은 화자가 계절의 순환 질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 ④ ㉠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이고, ㉡은 화자가 고향 사람들의 인정을 느끼는 시간이다.
- ⑤ ㉠은 화자가 가족에 대해 애뜻함을 느끼는 시간이고, ㉡은 화자가 가족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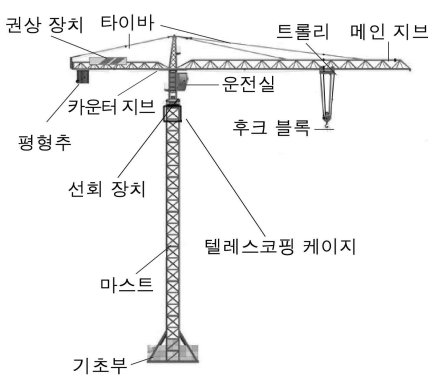
23. ㉓의 관점에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운명을 결정짓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외로움도 자신이 받아들이는 운명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 달리 사람들의 운명은 고르게 타고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 ④ (가)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나)는 과거와 현재의 괴리감이 화자가 운명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타인과의 동질감에서 운명적인 삶에 대한 위안을, (나)의 화자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현장을 보면 우뚝 솟아 있는 타워 크레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타워 크레인은 수십 톤에 ㉓ 달하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건설 기계 장비이다. 그렇다면 타워 크레인은 어떻게 수십 톤의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일까?

타워 크레인은 <그림>과 같이 기초부, 마스트, 텔레스코핑 케이지, 운전실, 지브, 트롤리, 후크 블록 등으로 구성된다. 기초부는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부분이고, 마스트는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기둥이다.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로, 유압 장치를 통해 운전실을 들어 올린 후 마스트와 운전실 사이의 빈 공간에 단위 마스트를 끼워 넣어 높이를 조절한다.

운전실은 타워 크레인을 ㉔ 제어하는 곳으로, 하단에는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선회 장치가 있고, 상단의 타워 헤드에는 지브의 인장력을 보강하면서 평형 유지를 돕는 타이바가 ㉕ 연결되어 있다. 지브는 카운터 지브와 메인 지브로 구성되는데, 카운터 지브는 길이가 짧으며 일정한 무게의 콘크리트 평형추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메인 지브는 길이가 길고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트롤리는 메인 지브의 레일을 통해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카운터 지브와 메인 지브의 길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지레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지레에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 있는데, 작용점에 가하는 힘을 F, 작용점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D, 힘점에 작용하는 힘을 f, 힘점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FD = fd$ 이면 지레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게 된다. 마찬가지로 타워 크레인의 평형추는 작용점, 운전실 지점은 받침점, 트롤리는 힘점에 해당하는데, 타워 크레인은 두 지브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카운터 지브에 무거운 평형추를 설치하여 길이가 긴 메인 지브와 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그런데 타워 크레인은 메인 지브에 있는 트롤리의 위치에 따라 들어

올릴 수 있는 중량물의 무게가 달라진다. 메인 지브의 바깥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자유롭지만, ㉖ 반대로 메인 지브의 안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바깥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타워 크레인이 수십 톤에 달하는 무거운 건축 자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중량물을 매다는 후크 블록에 움직도르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후크 블록의 움직도르래는 와이어로프를 통해 권상 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권상 장치는 그 안에 있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에 따라 와이어로프를 원통 모양의 드럼에 감거나 풀어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린다. 도르래를 사용할 때의 역학 관계는 '일의 양(W) = 줄을 당긴 힘(F) × 감아올린 줄의 길이(S)'로 나타낼 수 있다. 동일한 무게의 물체를 들어 올린 높이가 같다면 권상 장치가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 한 일의 양이 같다. 그런데 고정도르래만 사용할 때와 비교해, 움직도르

[A] 래 1개를 사용하여 지상에서 같은 높이로 물체를 들어 올리면, 일의 양은 같지만 도르래 양쪽으로 물체의 무게가 반씩 ㉗ 분산되기 때문에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1/2로 줄어들게 되고, 감아올린 줄의 길이는 2배로 길어진다. 이러한 움직도르래를 타워 크레인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마다 동일한 무게의 중량물을 같은 높이로 들어 올릴 때 권상 장치가 사용하는 힘의 크기가 더 ㉘ 감소하지만, 권상 장치가 감아올리는 와이어로프의 길이는 더 길어지게 된다. 하지만 여러 개의 움직도르래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닥의 와이어로프가 바람에 의해 꼬여 손상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움직도르래의 개수가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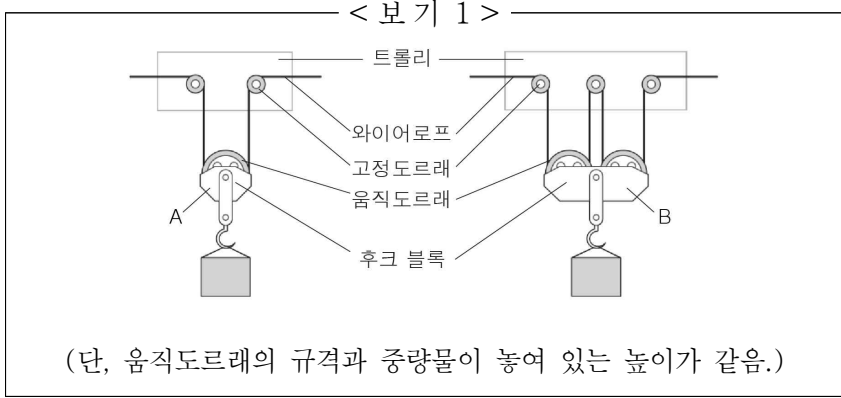
24.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타이바는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지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② 타워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중량물의 수평 이동은 트롤리와 선회 장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③ 후크 블록에 여러 개의 움직도르래가 사용되면 와이어로프가 꼬여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④ 타워 크레인이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와 내릴 때에 권상 장치에 있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된다.
- ⑤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유압 장치를 이용해 마스트를 들어 올려야 한다.

25. ㉙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평형추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와 평형추의 무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 ② 평형추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에 비해 트롤리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 ③ 트롤리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 ④ 카운터 지브에 설치된 평형추의 무게와 권상 장치에 있는 중량물의 무게의 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 ⑤ 트롤리가 메인 지브의 바깥쪽으로 이동할수록 평형추가 있는 카운터 지브 쪽으로 타워 크레인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26. [A]를 바탕으로 <보기 1>을 이해한 내용을 <보기 2>와 같이 정리할 때, (ㄱ), (ㄴ)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2 >

A, B를 이용해 같은 무게의 중량물을 각각 들어 올릴 때, 권상 장치가 감아올린 와이어로프의 길이가 같다면 권상 장치가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한 힘의 크기는 (ㄱ), 들어 올린 중량물의 높이는 (ㄴ).

- | | |
|-------------|-----------|
| (ㄱ) | (ㄴ) |
| ① A가 B보다 크고 | A가 B보다 높다 |
| ② A가 B보다 크고 | A가 B보다 낮다 |
| ③ A가 B보다 작고 | A가 B보다 높다 |
| ④ A가 B보다 작고 | A가 B보다 낮다 |
| ⑤ A와 B가 같고 | A와 B가 같다 |

27. 문맥에 맞게 ㉠ ~ ㉣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이르는
- ② ㉡ : 받치는
- ③ ㉢ : 이어져
- ④ ㉣ : 나누기
- ⑤ ㉤ : 줄지만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자 가만히 북문을 열고 도망하실새, 길은 없고 다만 산이 가리우니 어찌 행하리오. 적장 강공 형제 천자를 쫓아오며 무수히 무찌르니, 최두와 왕건 두 사람이 천자를 호위하며 달더니, 적병이 급함을 보고 칼을 들고 내달아 싸우더니, 일합이 못 하여 강공은 최두를 베고, 강녕은 왕건을 베니, 송 진영에 남은 군사 싸울 마음 없는지라. 강공이 칼을 찌며 외쳐 왈,
 “송 천자는 죽기를 두리거든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고 점점 가까와 오니, 천자가 황황망조하여 양천통곡 왈,
 “송조 백여 년 기업이 짐에게 이르러 망할 줄 알리오.”
 하시고 어찌할 줄 모르시며, 찻던 인검을 빼어서 자결코자 하시더니, 천만의외에 한 소년 장수가 나는 듯이 내달아 천자를 구하고 적병을 엄살하니, **아지 못하겠어라. 이 어떤 사람인고.**
 ㉠ 선설*, 유실부가 모친 슬하를 떠나 말을 타고 연무대를 찾

아 천자가 친히 출정하시는 군중에 참여코자 하였더니, 천자가 그 나이 어림을 꺼리사 무용지인(無用之人)으로 내치심을 보고 물러나매, 그 향할 바를 아지 못하고 말을 이끌고 초조히 다니며 부친 소식을 탐지하더니, 한 주점을 찾아 밥을 사 먹으며 쉬더니, 문득 백발노인이 갈건야복으로 청려장을 끌고 지나다가, 유생을 보고 급히 들어와 문 왈,
 “그대 아니 유실부인다?”
 유생이 그 노인의 늙름한 거동을 보고 일어 공경 대 왈,
 “과연 그렇도소이다.”
 노인 왈,
 “내 그대에게 가르칠 말이 있으니, 나와 한가지로 집에 감이 어떠하뇨?”

(중략)

수 권 서책을 내어 놓고 보라 하니, 유생이 일견에 신통한 술법임을 알고 인하여 배우니, 불과 수년지내(數年之內)에 능히 재주를 통한지라. 노인이 기뻐 실부에게 일러 왈,
 “그대 이제 천지조화지리를 알았으니, 세상에 나아가 천자 [A]의 위태함을 구하고,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라.”

유생이 이미 도적이 군사를 일으켜 천자가 출정하심을 짐작하였으나, 위태하심을 구하란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문 왈,
 “대인 이런 산중에 은거하시며 어찌 세상일 알으시니이까?”
 노인이 미소 왈,
 “내 자연 알 일이 있기로 알거니와, 사람이 때를 잃음이 불관(不關)하니, 이별이 심히 서운하나 어찌 면하리오.”
 하고 행장을 차려 주며 떠남을 재촉하니, 생이 마지못하여 절하며 왈,
 “대인의 은혜로 배운 일이 많사올 뿐 아니라 천륜(天倫) 같은 정의(情義)를 졸연히 이별하오니, 어느 날 다시 만남을 아지 못하리도소이다.”
 노인이 더욱 기특히 여겨 왈,
 “일후 나를 찾고자 하거든, 백학산 백학도사를 찾으라.”
 하고, 한가지로 산에 내려 작별하고 문득 간 데 없는지라. 유생이 신기히 여겨 백학산을 바라보고 무수히 감사드려 절하며, 길을 찾아 말을 타고 황성(皇城)으로 향하더니 날이 저물매 저녁을 사 먹고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홀연 일위 선관(仙官)이 앞에 나와 절하고 왈,
 “소제(小弟)는 동해 용왕의 둘째 아들이옵더니, 부왕의 명을 받자와 형장께 당부할 말이 있기로 왔삼거니와, ‘지금 [B] 천하가 요란하여 명일 신시(申時)에 천자의 위태함을 구할 자는 당금(當今) 유실부라.’ 하시기로 왔사오니, 부디 때를 잃지 말고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소서.”
 하거늘, 유생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묻고자 하다가 홀연 벽력(霹靂) 같은 말소리에 놀라 깨달으니 꿈이라. 유생이 급히 일어나 마음을 진정치 못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 다시 말을 타고 채를 치니 순식간에 오백여 리를 행한지라. 바로 황성으로 향하더니, 문득 공중에서 외쳐 왈,
 “장군은 황성으로 가지 말고 남평관 북문 밖으로 가라.”
 하거늘, 유생이 비로소 신령이 지시함을 짐작하고 말을 달려 남평관을 찾아가니, 관중에 적병이 웅거하고 산하에 호통 소리 진동하거늘, 생이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갑주를 떨치고 칼을 찌며 십만 적병을 풀 베듯 하여 무인지경(無人之境)같이 하여 들어가니, 적장 강공과 강녕이 천자를 에워싸고 무수히 꾸짖고 욕하며 항복하라 재촉하거늘, 유생이 분기 대발하여 쟁룡검을 두르고 짓쳐 들어가니, 장졸의 머리 무수히 떨어지는지라.

강공과 강녕이 비록 용맹하나 불의지변(不義之變)을 만나매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여, 쟁룡검이 이르는 곳에 강공과 강녕의 머리 칼빛을 좇아 떨어지는지라. 호로왕이 몹시 놀라 남은 군사를 이끌고 십 리를 물러 제장을 불러 왈,

“아까 강공 형제 벤 장수는 천신(天神)이 아니면, 이는 반드시 신장(神將)이로다.”

하고 양장의 죽음을 슬퍼하더라.

유생이 적장의 머리를 칼끝에 꿰어 들고 바로 천자 앞에 나아가 복지(伏地) 주 왈,

“신은 당초 연무대에서 말 달리던 유실부옵더니, 황실의 위태하심을 듣삼고 혈기지분(血氣之忿)으로 당돌히 전장에 참여하여 다행히 적군을 물리치오나, 천명(天命)을 어기었사오니 군법으로 시행하소서.”

차시*, 천자가 적진에 싸여 거의 잡히기에 이르매,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자결코자 하시더니, 난데없는 소년 장수가 나는 듯이 들어와 일함에 적장을 베고, 좌충우돌하여 화망을 벗겨 줌을 보시고 천심을 진정하사 좌우에게 물어 가라사대,

“저 어떤 장수인고? 필경 천신이 도우심이로다.”

하시고 신기히 여기시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그 소년 장수가 적장의 머리를 가지고 엮드리며, 성명이 유실부라 하여 죄를 청함을 보시고, 천심이 기쁘사 친히 내려 그 손목을 잡으시고 타루(墮淚) 왈,

“저 즘음에 짐이 경의 용맹 있음을 짐작하였으나 그 소년을 아껴 감히 쓰지 못하였더니, 이제 경이 짐의 어리석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짐의 급함을 구하여 송 왕실을 회복하고 사직(社稷)을 안보케 되니, 그 공을 갚을 바를 아지 못하거니와, 경의 부친은 이름이 무엇이뇨?”

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왈,

“신의 아버지는 한림학사 유태사요, 조부는 호부상서 유방이로 소이다.”

- 작자 미상, 「월왕전」 -

* 선설: 앞의 이야기를 하자면.

* 차시: 이때.

2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천자는 북문을 나와 유실부가 있는 곳으로 몸을 피했다.
- ② 최두와 왕건의 충성에 송나라 군사들은 전의를 불태웠다.
- ③ 연무대를 나온 유실부는 주점에서 부친을 간절히 기다렸다.
- ④ 유실부는 술법을 배우려고 백발노인을 찾아 산천을 헤맸다.
- ⑤ 유실부는 명을 어기고 출정한 점에 대해 천자에게 죄를 청했다.

29. ㉠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실부의 활약을 소개해 천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부각한다.
- ② 유실부의 행적을 서술해 최두를 만나게 된 내막을 부각한다.
- ③ 유실부의 고난을 드러내 천자가 조력자가 된 사연을 부각한다.
- ④ 유실부의 정체를 밝혀 영웅적 활약상을 펼친 배경을 제시한다.
- ⑤ 유실부의 가계를 언급해 고귀한 혈통을 지닌 내력을 제시한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월왕전」은 유교적 충효 사상을 주제로 한 군담소설로서 19세기 무렵 민간에서 판각한 방각본 소설이다. 상업성을 추구했던 대개의 방각본 소설처럼 이 작품도 주로 오락적 목적의 독서를 즐겨 하는 독자층을 겨냥한 다양한 소설적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전기적(傳奇的) 요소의 활용은 물론, 극단적 상황 설정,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단절 기법,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를 위한 압축적인 사건 서술이 잘 나타나 있다.

- ① 천자가 쫓기다 ‘인검을 빼어서 자결코자 하’는 데서 극단적 상황을 통해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군.
- ② ‘아지 못하겠어라. 이 어떤 사람인고.’에서 단절 기법을 통해 소년 장수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군.
- ③ ‘불과 수년지내에 능히 재주를 통’했다는 데서 유실부가 신통한 술법을 갖춘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유생이 적장의 머리를 칼끝에 꿰어 들고 바로 천자 앞에 나아가’는 데서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고 있군.
- ⑤ 위태로운 황실의 상황을 듣고 ‘당돌히 전장에 참여하여 적장을 물리치는 데서 유교적 충의 사상이 나타나 있군.

31.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현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행동의 시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A]는 상대의 능력을, [B]는 권위자의 명령을 근거로 한 발화이다.
- ④ [A]는 수행할 임무를, [B]는 임무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상대의 명망이 높아질 것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32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미가 물질적인 대상의 형식적인 구조 속에 표현되는 객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였다. 피타고라스는 수를 이 세상의 근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그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수적인 비례에 의한 것이라는 균제 이론을 내세웠다. 피타고라스의 철학은 그 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서양 철학사를 주도한 이들에게 수용되어 균제 이론은 서양 미학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플로티노스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미의 본질은 균제로 대표되는 수적 비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균제 이론은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플로티노스는 균제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균제를 이루지 않는 단순한 색이나 소리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내세운다. 또한 그는 품위 있는 행동이나 훌륭한 법률과 같은 것들도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러한 비물질적인 특질에 어떻게 균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반문한다.

미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부정한 플로티노스는 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의 본질을 정신에서 찾았다. 플라톤은 이 세계를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누고, 현상계는 이데아계를 본떠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플로티노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데아계인 예지계와 감각세계인 현상계로 구분했다. 그러나 두 세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본 플라톤과는 달리 플로티노스는 ‘유출(流出)’과 ‘테오리아(theōria)’의 개념을 통해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플로티노스에 의하면 세상의 근원인 ‘일자(一者)’는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원천으로 마치 광원(光源)과도 같아서 만물은 일자의 빛이 흘러넘침, 즉 유출에 의해 순차적으로 생성된다. 일자로부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절대적이며 초개별적인 ‘정신’이고, 정신으로부터 우주 영혼과 개별 영혼들이 산출된다. 일자, 정신, 영혼 이 세 가지 존재자들이 비물질적인 예지계를 구성한다. 이를 뒤이어 감각적 존재자들의 현상계가 출현하는데, 먼저 영혼으로부터 실재하는 감각 대상들의 세계인 자연이 유출되며, 다시 자연으로부터 가장 낮은 단계의 존재자들인 아무런 형상이 없는 질료*들이 유출된다.

㉠ 일자에서 ㉡ 정신, ㉢ 영혼, ㉣ 자연, ㉤ 질료로의 유출은 존재의 완전성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출로 연결된 존재 간에는 어떤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으며, 위계질서를 가진다. 이처럼 예지계와 현상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플로티노스의 주장이다. 이런 생각에 의거하여 미(美)는 마치 빛이 그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밝기가 약해지듯이, 일자에서 질료로 내려갈수록 점차 추(醜)에 가까워지게 된다.

미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이런 생각으로 인해 그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 플라톤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실질적으로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질적이고 정신적인 미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플로티노스에게 예술은 모방의 모방이 아니라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물질화하는 것이 된다. 플로티노스에게 있어 미의 형상은 본래 정신에 있는 것이지만 예술가의 영혼에도 정신의 속성인 미의 형상이 내재해 있다. 이때 영혼 안에 있는 미의

형상을 질료에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그러므로 예술이란 ㉠ 귀납적 표상으로 형성되는 관념상을 그리는 행위가 아니라 선형적 관념상, 즉 ㉣ 연역적 표상을 현상계의 감각적인 것으로 유출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예술가는 이렇게 질료에 미의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이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완한다. 그런 의미에서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처럼 예술을 예지계와 현상계 다음에 위치시키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지계와 현상계 중간에 있는 것이다.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우리 영혼이 현상계에서 일자로 올라가기 위해 던고 서야 할 디딤돌이라고 보았다. 영혼은 근원인 일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일한 근원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근원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일자와 동일한 것을 공유한다는 것을 잊고 물질세계의 감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다. 우리의 영혼이 일자와 합일해야 한다고 본 플로티노스는 영혼이 내면을 관조함으로써 자신의 근원인 일자를 상기할 수 있으며, 일자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일자로부터의 유출로 생성된 각 단계의 존재들이 거꾸로 예지계의 일자에게로 회귀하는 상승 운동이 ‘테오리아’이다. 테오리아를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에 정신의 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감각적인 미이다. 플로티노스가 예술을 중시하는 것은 예술이 미적 경험을 환기하여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강력한 추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술가의 내면, 나아가 그 원형인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은 인간의 영혼과 초월적인 존재의 신성함을 표현하려 했던 중세의 비잔틴 예술을 탄생하게 했다. 또한 가시적인 외부 세계의 재현을 부정하고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미 이론은 낭만주의와 현대 추상 회화의 근본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질료: 물체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재료.

32.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미에 대한 피타고라스학파의 인식
- ② 플로티노스가 분류한 예술의 유형
- ③ 균제 이론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시각
- ④ 플라톤과 플로티노스 예술관의 차이
- ⑤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이 지니는 의의


33. ㉠ ~ ㉤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속성은 위계적 차등에 따라 ㉡, ㉢, ㉣, ㉤로 전해진다.
- ② ㉠에 가까운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미, 추를 판단할 수 있다.
- ③ ㉠ ~ ㉤는 동일성을 함유하면서 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 ④ 유출은 ㉠에서 ㉤로, 테오리아는 ㉤에서 ㉠로 향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 ⑤ ㉠, ㉡, ㉢의 예지계와 ㉣, ㉤의 현상계는 정신에 의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34. 윗글의 ‘피타고라스’, ‘플라톤’, ‘플로티노스’가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기원전 1~2세기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밀로의 비너스」 석상은 양팔이 잘려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비너스 여신의 모습을 키가 머리 길이의 8배를 이루는 황금비율로 형상화하였다.



- ① 피타고라스는 비너스 석상이 황금비율이라는 수적 비례를 지켰기에 미의 본질을 구현했다고 평가했겠군.
- ② 플라톤은 이데아계와 현상계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데아계의 여신을 비너스 석상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보았겠군.
- ③ 플라톤은 비너스 석상은 이데아계를 직접 모방한 것으로 인간에게 이데아계를 지향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인정했겠군.
- ④ 플로티노스는 비너스 석상이 감상자로 하여금 일자로 회귀하는 테오리아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겠군.
- ⑤ 플로티노스는 돌을 질료로 하여 예술가가 자신의 영혼에 내재된 미를 비너스 석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했겠군.

35. 윗글의 ‘플로티노스’와 <보기>의 ‘칸딘스키’의 공통된 예술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칸딘스키의 추상은 세잔, 입체파, 몬드리안 식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의 추상은 사물의 단계적 단순화로 시작하여 종국에 그 본원적 모습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방법으로 정신이나 초월적인 것을 구현해 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형이상학적 관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예술가는 그것의 발견자 내지 전달자이다.

- ①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질료를 통해 물질화할 수 없다고 본 점
- ② 예술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형이상학적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본 점
- ③ 객관적인 법칙이 형식적인 구조 속에 표현될 때 미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본 점
- ④ 초월적인 존재의 미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감각적 미를 탈피해야 한다고 본 점
- ⑤ 예술의 본질이 현실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관념을 표현하는 데 있다고 본 점

36. 다음은 윗글의 ㉠, ㉡과 관련한 독서 활동 과정이다. 과제 해결 단계의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과제 설정

-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 ㉡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료 조사

- 백과사전에서 ‘귀납’, ‘연역’, ‘표상’의 의미 찾기
- <귀납>
 - 개개의 현상으로부터 보편적 원리를 도출하는 것
- <연역>
 - 보편적 원리로부터 개개의 현상을 이끌어내는 것
- <표상>
 - 마음이나 의식에 나타나는 것

의미 구성

-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 구성해 보기
- ㉠. 현상계의 경험에서 도출한 보편적 미를 형상화하는 행위
- ㉡. 일자에서 비롯된 미의 형상을 발견해 질료에 담는 행위
- ㉢. 질료의 형식적 구조에서 비물질적 특성을 도출하는 행위
- ㉣. 영혼이 내면을 관조하여 자연에 존재하는 미를 발견하는 행위

과제 해결

- 구성 내용 중 적절한 것을 골라 과제 해결하기
- ㉠은 (A)이고, ㉡은 (B)이다.

	(A)	(B)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윈은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번식하면 그 형질 중 일부가 자손에게 전달돼 진화가 일어난다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자연계에서는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이 자주 ㉠ 관찰된다. 이에 진화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해밀턴은 개체들의 이타적 행동은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 혈연 선택 가설을 제시하였다. ㉢ 해밀턴의 법칙에 의하면, ‘ $r \times b - c > 0$ ’을 만족할 때 개체의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한다. 이때 ‘r’은 유전적 근연도로 이타적 행위자와 이의 수혜자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b’는 이타적 행위의 수혜자가 얻는 이득을, ‘c’는 이타적 행위자가 ㉣ 감수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부나 모가 자식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50%이고, 형제자매 간에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도 50%이다. r은 2촌인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촌이 늘어날 때마다 반씩 준다. 가령, 행위자가 세 명의 형제를 구하고 죽는다면 $0.5 \times 3 - 1 > 0$ 이므로 행위자의 유전자는 그의 형제들을 통해 다음 세대로 퍼지게 된다. 이러한 해밀턴의 이론은 유전자의 개념으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한 것으로, 이타적 행동의 진화에 얽힌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로 평가된다.

도킨스는 ㉔ 『이기적 유전자』에서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자신의 복제본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전자는 다음 세대에 다른 DNA 서열로 대체될 수 있는 DNA 단편으로, 염색체상에서 임의의 어떤 DNA 단편은 그와 동일한 위치나 순서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 그는 다윈과 같은 기존의 진화론자와 달리 생존 경쟁의 주체를 유전자로 보고 개체는 단지 그러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체의 행동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 실은 유전자가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 셈이다. 이러한 도킨스의 이론은 유전자의 이기성으로 동물의 여러 행동을 설명하여 과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개체를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을 돕는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타적 행동이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기적 사람들과 이타적 사람들이 공존할 경우 이타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㉓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최근 진화적 게임 이론에서는 ‘반복-상호성 가설’과 ‘집단 선택 가설’을 통해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 및 이타적 인간이 진화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㉕ 반복-상호성 가설에서는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대방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이타적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게임 이론 중 하나인 TFT 전략으로 설명한다. TFT 전략이란 상대방이 협조할지 배신할지 모르고 선택이 매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협조하고 그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전에 사용한 방법을 모방하는 전략이다. 즉 상대방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타적으로,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점점 상대방의 배신 횟수는 줄고 협조 횟수는 늘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반복-상호성 가설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㉖ 유용하지만 반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㉗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생존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타적 인간이 진화한다고 설명한다.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개인이 생존하는 개인 선택에서는 이기적 인간이 살아남는 데 유리하지만, 집단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집단이 생존하는 집단 선택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일수록 식량을 구하거나 다른 집단과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집단 선택에 의해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생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를 구성하

는 이타적 인간도 진화하게 된다. 실제로 인류는 혹독한 빙하기를 거쳐 살아남은 존재라는 점에서 집단 선택 가설은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기적인 구성원도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집단 선택에 의해서 이타적인 구성원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㉙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에서는 집단 선택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선택 가설은 논리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의 효과를 높이는 장치로서 법과 관습과 같은 제도에 주목하면서, 집단 선택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37. (가)와 (나)의 서술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대립된 이론을 절충하고 있다.
- ② 이타적 행동을 정의한 후 구체적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 ③ 이타적 행동에 관한 이론들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④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 ⑤ 이타적 행동에 관한 이론과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38. 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전적 근연도에 초점을 맞춰 이타적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개체의 이기적 행동에 숨겨진 이타적 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이타적 행위자와 그의 수혜자가 삼촌 관계일 경우 r은 0.25가 된다.
- ④ 이타적 행위자와 수혜자가 부모 자식이나 형제자매 관계일 경우 r은 같다.
- ⑤ 이타적 행위자와 그의 수혜자가 혈연관계일 때, b와 c가 같으면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하지 않는다.

39. (나)의 TFT 전략을 참고할 때 <보기>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다음은 A와 B의 협조 여부에 따른 보수(편익과 비용의 합)를 행렬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가 상대방의 선택을 모르고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A만 ‘TFT 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B가 첫 회에만 비협조 전략을 사용한다면, B가 두 번째 회까지 얻게 되는 보수의 합은 얼마인가?

		B		
		전략	협조	비협조
A	협조	(1, 1)	(-1, 2)	
	비협조	(2, -1)	(0, 0)	

<(2, -1)은 A가 비협조 전략, B가 협조 전략을 사용할 때, A의 보수가 2, B의 보수가 -1임을 나타냄.>

-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40.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단 선택의 속도가 개인 선택의 속도보다 느릴 경우, 이타적 구성원의 수가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 ② 개인 선택으로 이타적인 구성원이 먼저 소멸한 후, 집단 선택에 의해 이기적인 구성원이 소멸하기 때문에
- ③ 집단 선택이 천천히 일어날 경우 집단 간의 생존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집단 선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 ④ 개인 선택으로 이타적인 구성원이 먼저 소멸하면, 이타적 구성원을 진화하게 하는 집단 선택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 ⑤ 개인 선택의 속도가 집단 선택의 속도보다 빠를 경우,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개인 선택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41. ㉡ ~ ㉣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개미의 경우, 수정란(2n)은 암컷이 되고, 미수정란(n)은 수컷이 된다. 여왕개미가 낳은 암컷들은 부와는 1, 모와는 0.5, 자매와는 0.75의 유전적 근연도를 갖는다. 암컷 중 여왕개미가 되지 못한 일개미들은 직접 번식을 하지 않고 여왕개미가 낳은 수많은 자신의 자매들을 돌보며 목숨을 걸고 개미 군락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 현재 지구상에는 390여 개의 부족이 수렵과 채취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부족은 대체로 몇 개의 서로 다른 친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주의적 부족 질서 아래 사냥감을 서로 나누어 먹는 식량 공유 관습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사냥 성공률이 낮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생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① ㉡: ㉡에서는 일개미가 자식을 낳지 않고 자매들을 돌보는 것을 부모보다 모의 유전자를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겠군.
- ② ㉡: ㉡에서는 일개미가 목숨을 걸고 개미 군락을 지키는 것을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유전자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겠군.
- ③ ㉢: ㉢에서는 자신이 식량을 나눠 주지 않으면 사냥에 실패했을 때 자신도 얻어먹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공유 관습이 생긴 것으로 보겠군.
- ④ ㉢: ㉢에서는 식량 공유 관습을 이기적인 구성원도 식량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타적 구성원이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보겠군.
- ⑤ ㉢: ㉡에서는 혈연관계가 없는 구성원과의 식량 공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에서는 협업을 통해 집단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행동으로 보겠군.

42. 밑줄 친 단어가 ㉠ ~ ㉣와 동음이의어인 것은?

- ① ㉠: 그는 형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 ② ㉡: 이 사건은 여러 전문가가 감수하였다.
- ③ ㉢: 그 기업은 경쟁사에 밀려 도태되었다.
- ④ ㉣: 이것은 장소를 검색하는 데 유용하다.
- ⑤ ㉣: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하였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파트에 이사 오더니 대접이 달라지네. 웬 밤참이야. 근데 이것 자몽 아냐?”

“글쎄, 오늘 은행에 갔다가 잡지를 봤더니 티타임에 곁들이는 간식이 **화보**로 나와 있더라구요. 하마터면 창피당할 뻔했지 뭐예요. 티타임이면 난 그냥 차만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왔는데 우리 식구들도 좀 맛을 봐야겠기에…….”

“그런데 왜 하필 자몽이야?”

“굴이나 사과는 흔해서 잘 안 쓰나 봐요. 화보에 없더라구요. 말로만 듣던 키위가 가게에 가득 쌓여 있었지만 생긴 모양이 고약해서 썩 손이 안 가지더라구요. 바나나는 날개로는 안 파는지 몸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딸기도 포도도 있었지만 그것도 너무 비싸서 들었다가 슬쩍 놓았어요. 그래도 자몽이 값이 만만하고 또 먹음직스러워 보여서요.”

“한동안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텔레비전에서 왕왕거렸는데 당신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단 말야?”

“그래도 **이쪽 동네에서 산 걸요.**”

“내 참, **저쪽 동네에서 사면** 농약이 있고 **이쪽 동네에서 사면** 농약이 없는 거야?”

아내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그래도 두 아이는 순식간에 접시를 비웠다.

밤참이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부터였다. 다음날이라도 티타임이 이루어졌다면 부질없는 밤참 습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티타임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밤마다 조금씩 식구들에게 티타임에 멋지게 곁들였을 간식을 제공했다. 밤참은 같은 내용이 사나흘쯤 나오다가 바뀌었다. 영 먹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키위도 나왔고, 맛대加里 없이 크기만 한 멜론, 입 안에 넣으면 슬슬 녹는 질 좋은 카스텔라, 부드럽게 씹히는 전병…… 두 아이가 손도 대지 않은 화과자는 하루에 두 개씩 내가 먹어 치웠고, 슈크림은 들척지근해서 나 대신 아이들이 반겼다. 습관처럼 고약한 것이 있을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었는데 점점 밤참 시간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아내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되면 은근히 오늘은 무엇을 내줄 것인지 궁금해 하기도 했다. 두 아이는 아내와 체면을 차릴 사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드러내 놓고 밤참을 독촉했다.

“이젠 망년회를 가느라고 다들 좀 바쁘가 봐요. 이 동네 사람들은 아마 호텔 같은 데에서 망년회를 하나 봐요. 상가에서 엽들은 건데 여자들 입에서 서울 시내 호텔 이름은 거다 나오는데 같았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티타임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밤참 시간을 식구들에게 베풀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밤참을 제공하며 폭탄선언을 했다. 당분간 밤참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표정이 보기 드물게 밝았다. 오늘 내가 머리를 좀 굴렸거든요. 글쎄, 무작정 티타임을 기다리다가는 가게부가 엉망이 되겠더라고요. 허긴 그동안 무리를 했어요. 이쪽으로 이사 오니까 생각보다 훨씬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엉뚱한 지출을 했으니 당연하지요. 그래서 아까 아침나절에 **13호 여자**가 나가는 소리를 토끼 귀를 해 가지고 기다리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서 마주치러 나갔지요. 아유, 내 피가 맞아 떨어졌어요. 우연히 마주친 척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했더니 그 여자가 냉큼 티타임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망년회**가 밀

려 있어 도무지 시간을 낼 것 같지 않아 걱정하던 참이라고 내숭을 떨었지요. 망년회도 안 나간다면 시시하게 볼 것 아네요. 어쨌든 당분간 맘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적어도 올해는 말예요..... 당분간 밤참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서운하기는 했지만 웬지 나도 아내처럼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중간 부분의 내용] 얼마 후 '나'는 티타임을 갖자고 술에 취해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고, 며칠 뒤 아내는 급작스레 티타임을 갖게 된다.

“어쨌든 기어이 티타임을 갖기는 했군.”
아내가 다분히 자조적인 웃음을 내비쳤다. 그리고 말했다. 아뇨, 라고. 그렇다면 우르르 몰려와 아내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붙이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다시 우르르 되돌아갔다는 말인가. 아내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일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일을 모르진 않을 거라구요. 앞 동에서도 인터폰을 두드렸는데 바로 옆에서 모를 리가 없죠. 모두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게 분명했다구요. 아무튼 들어들 오더니 집 구경 좀 하자면서 한바탕 집 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더라구요. 하지만 그다지 볼 게 없는지 금방 시들해져서 저기 거실에서 서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커튼 색깔이 괜찮다고 말했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나도 모르게 식탁보도 같은 걸로 했다고 자랑했지요. 그래서 모두 식탁보를 구경하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맵소사, 우리 애들이 여기 식탁에서 점심으로 떡을 먹고 있더라고요. 미처 애들을 방으로 밀어 넣지 못했던 거죠. 애들이 그때 피자 같은 걸 먹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신은 아마 **그때** 기분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내의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억울하고 부끄럽고 쓸쓸하고 참담했을 그 기분을.....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글썄, 13호 여자가 떡 접시를 보더니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나한테 먹어도 되느냐고 묻지도 않고 덥석 떡을 집더라니깐요. 그것도 손으로 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떡은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 난다나요. 그리고 티타임은 그만두고 떡 잔치나 하자고 하질 않겠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냉동실 안에서 떡을 꺼내 찜통에 쪄 냈죠. 동치미를 몇 그릇이나 해치웠게요. 얼마나 신이 나던지.....”

그렇다면 아내는 신나게 종잡거리야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내는 너무나 쓸쓸하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목소리도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한바탕 맛있게 떡을 먹고 나서야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인가. 잠자코 떡 접시를 만지작거리기만 하던 아내가 갑자기 나를 뻘뻘 쳐다보더니 말했다.

“여보, 그런데 나는 왜 이쪽 사람들도 **손으로 떡을 집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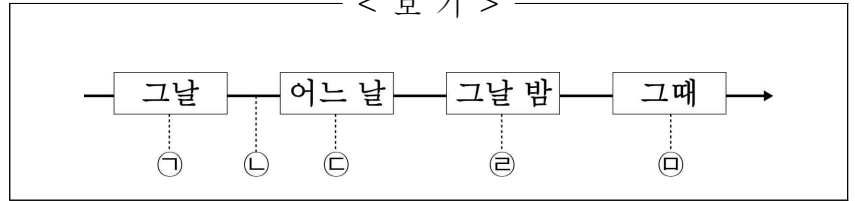
아내의 표정이 너무 슬펐기 때문일까. 공연히 콧잔등이 근질근질거리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 이선, 「티타임을 위하여」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인물로부터 전해 들은 사건의 전말이 제시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성격과 관련된 외양의 특징이 묘사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가 반복적으로 교차되며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④ 인물 간 대립된 행동이 갖는 의미가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 ⑤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조성된 갈등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44. <보기>의 ㉠~㉥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나'가 했을 법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농약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왜 굳이 자몽을 사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
- ② ㉡: '오늘도 어김없이 밤참이 제공된 것을 보니 티타임을 갖지 못한 것이겠군.'
- ③ ㉢: '밤참이 제공되지 않아 서운했지만, 아내의 무거운 마음을 생각하니 안타까웠어.'
- ④ ㉣: '나의 실수 때문에, 이웃들을 만났을 때 아내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어.'
- ⑤ ㉤: '아이들이 먹는 게 피자 같은 음식이 아니어서 부끄러웠을 아내의 마음이 느껴져.'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르네 지라르는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함으로써 '간접화된 욕망'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티타임을 위하여」의 '아내' 역시 아파트 주민들을 매개로 중산층의 삶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간접화된 욕망을 지닌다. 아내는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닮고 싶어 하면서도 그들에게 경쟁 심리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아내의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이 허상이 밝혀진다.

- ① '화보'는 아내로 하여금 매개자의 삶에 대한 모방 심리를 자각하게 하여 티타임을 갖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소재이겠군.
- ② '이쪽 동네에서 산 걸요'라는 말에서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를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아내가 '13호 여자'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중산층으로의 편입 기회인 티타임을 언제할지 몰라 답답했기 때문이겠군.
- ④ 아내가 '망년회가 밀려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욕망의 매개자인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경쟁 심리 때문이겠군.
- ⑤ '13호 여자'가 '손으로 떡을 집어 먹'은 것은 아내의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이 허상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